

제목 : 충무공 이순신과 독도

이은희

나는 지난 8월 9일 여수 진남 관을 찾았다. 여기서 내일부터 해양 경찰 훈련함을 타고 독도로 ‘해양영토순례교육’과정을 실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여수에서 출발하는 ‘해양영토순례’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하루 먼저 여수엘 가 충무공 유적지인 ‘진남관’을 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9일 오후 3시 바깥은 찌는 듯한 더위지만 진남관은 남해 바다에서 부는 바람으로 깃발이 휘날리며 나를 반겼다. 바다 쪽으로 충무공 광장에 거북선이 보면서 나는 진남관 탐방을 시작했다. 우리는 엄마가 일본인으로 다문화 가족이다. 이 번 내가 찾은 충무공 유적지와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무척 관계가 깊은 곳이기도 해 이곳을 찾으며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하는 내 생각이 궁금했다. 요즘 한창 TV 주말 연속극에 ‘충무공 이순신’이 나오는데 그의 등장엔 일본의 장수들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더욱 궁금해진 것이 이곳 ‘진남 관’을 찾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얼마 전 ‘명량’ 영화로 충무공의 용맹과 지략을 알게 된 나는 오늘 드디어 그가 우리 남해 바다를 호령하며 왜군을 무찌른 그 곳을 찾게 된 것이었다. 그가 입었던 갑옷, 긴 칼, ‘난중일기’ 등이 전시된 기념관을 해설자의 도움을 받으며 나는 2 시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 나는 해양 경찰 훈련원으로 가기

전에 ‘진남 관’이 국보로 지정된 게 얼마 안 되었다는 해설사의 설명이 머리에 남았다. 다시 나는 이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18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곳 사람들은 동네 입구 큰 정자나 원두막 정도로 생각했다니 우리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우리 연구가 얼마나 부족했나 참으로 안타까웠다. 사실 명량해전이 있었던 진도 앞 바다를 나는 가 본 적이 있다. 지난 세월 호 침몰 사건 때 ‘팽목 항’으로 2박 3일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들렀었다.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많은 전적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 해군사상 가장 큰 전적을 올린 ‘명량해전’의 전적 비는 육지에 있는 여느 다른 전적비보다 작아 보였다. 그 때 사실 나는 바다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큰 불행을 당해 바다가 미워 그런 생각을 못하다 이제야 생각난 것이었다.

나는 충무공 이순신과 같이 자랑스럽게 승리로 이끈 유적지에 대한 규모는 많은 희생을 치룬 슬픈 전적지보다 작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궁금했었는데 역시 이곳을 떠날 때까지도 내 의문은 안 풀렸다. 이런 내 의문은 11일 새벽 훈련함이 나를 독도 앞바다에서 데려다 놓으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독도는 2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고 난 충무공 이순신께서 큰 칼로 바위섬을 베어 두 개로 나눈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동도)는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두고 다른 하나(서도)는 몇몇하게 전 세계에 외칠 우리 ‘해양영토’인 ‘한국 령’이라 쓸 바위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슬픔은 밖으로 드러내지만

승리는 우리 마음 속 깊이 있는 것을 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충무공 이순신께서 내가 한동안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림없이 가지고 있던 독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 것이었다.

그렇다. 내게 독도가 분명 우리나라 영토임을 깨닫게 해준 분은

충무공 이순신이었다.